

#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박차… 성공모델 발굴 착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5개년 청년정책 수립 위한 공유  
올해 지정 목표…국정과제 대응  
“세대 소통형 공간 조성 나설 것”

전라남도 광양시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청년정책 5대 분야 50개 사업 담당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부터 적용되는 5개년 계획인 제2차 광양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제1차 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을 진단한다. 이후 청년 체감도가 높은 실효성 있는 ‘광양형 청년정책’을 새롭게 발굴·수립한 뒤

2025년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김기홍 부시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시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심층적인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현필 한국자치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청년정책은 지나치게 산업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일상에 밀접한 소소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남도립미술관과 미디어아트 등 광양의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접점으로 삼아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부터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



광양시가 ‘광양형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사진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이 ‘보육사랑 100인+ 기부 릴레이’ 기탁식을 개최한 모습.

광양시 제공

을 위한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도시를 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25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광양시는 ‘2024 청년친화현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청년인구 순유입 증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부문 ‘전국 최초 10년 연속 수상’ 등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고향올래 청년복합공

간 조성사업’과 ‘청춘스케치마을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해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을 이끌 계획이다.

이어 ‘젊음의 광장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먹거리, 창업이 어우러진 세대 소통형 공간 조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 취약계층 수도요금 지원 성금 기탁 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

전라남도 장흥군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장흥수도지사가 취약계층을 위한 ‘물 나눔 행복두배 프로그램’을 통해 62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흥수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체 예산과 장흥수도지사 직원들의 자발적 급여 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관내 97가구를 대상으로 3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규모를 늘려 137가구에 6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장흥군에서는 기존에 군에서 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아닌 물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 137가구를 새롭게 선정해 8개월간 상수도 요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 가수 ‘선’ 초청 행복강좌 개최 20일, 고흥군문화회관서

전라남도 고흥군이 군민의 지성과 감성을 채워 줄 특별한 강연을 마련했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20일 오후 3시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힙합그룹 지누션의 멤버이자 자선 활동가로 잘 알려진 가수 ‘선’이 강사로 나서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고흥행복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수 ‘선’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다. ‘기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다’라는 철학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다양한 자선 활동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선’이 진행하는 ‘투게리티요양병원 건립 캠페인’,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개선 캠페인’, ‘کم패션 어린이 후원’ 등은 우리 사회에 울림을 준 대표적인 활동으로, 그가 가진 삶의 자세와 기부 이야기는 군민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은 강연을 무료로 운영하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지난 16일 고흥군 한 복숭아 농가에서 농민이 조생 복숭아를 수확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 고흥군, 고품질 ‘조생 복숭아’ 본격 출하

전라남도 고흥군은 수확철에 접어든 조생 복숭아의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17일 밝혔다.

고흥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6월 상순부터 복숭아 수확이 가능해 시장 선점에 유리하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관내 48.1ha, 94 농가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흥산 조생 복숭아는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로 소비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농촌진흥청의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사업비 3억원을 확보,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선도유지 기술을 적용 중이다.

수확 후 신선도 유지 장비, 해충 발생 밀도를 줄이는 친환경 고미교란제, 이상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살수 장치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복숭아 재배기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홍콩으로 복숭아를 수출하고 있는 고흥군의 한 농가는 “고흥군 농업기술센터의 세심하고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수확 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 장거리 수출 기반이 차츰 마련되고 있다”며 “앞으로 고흥 조생 복숭아의 수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 보성군, 호남 유일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선정

### 국비 1억5000만원 확보 ‘녹차골 청춘식당’ 추진

전라남도 보성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 공모사업’에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총 1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를 기반으로 고령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100% 국비 지원 사업이다.

전국에서 총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으며, 보성군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보성군은 대한노인회 보성군지회와 협력해 보성읍 노인회관 1층에 지역 복지형 식당인 ‘녹차골 청춘식당’ 조성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 수행기관의 역량과 사

업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의 투자 계획 등이 보건복지부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선정됐다.

‘녹차골 청춘식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취약계층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연대감 형성과 이웃 간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며, 복지 공동체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양종수 기자

## 여수시, 에코국제음악제 개최 19~22일, GS칼텍스 예울마루

전라남도 여수시가 주최하고 (재)범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0회 여수에코국제음악제’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GS칼텍스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열린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10회를 맞는 이번 음악제는 ‘비상, 바다를 날다’를 주제로, 여수의 푸른 바다를 클래식 음악으로 표현해 깊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오는 19~20일 공연은 오후 7시30분, 21~22일 공연은 오후 5시에 진행되며 김민지 예술감독의 총괄 아래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음악제 기간 여수시 일원에서는 ‘넷제로 페스타 여기있수’가 함께 열린다. 넷제로 페스타는 환경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음악회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클래식 음악을 관객과 공유할 예정이다.

공연 입장권은 전 좌석 5만원으로 인터파크(1544-1555)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공연 관련 문의는 (재)범민문화재단(061-666-3139)에서 안내받으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 후계농업경영 산업기능요원 모집 고흥군, 영농 활동 군 복무 대체

전라남도 고흥군이 오는 20일까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대상자를 모집한다.

17일 고흥군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현역 복무 대신 본인의 영농 기반에서 영농 활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이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6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이다.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불가하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학·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의무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부터 현역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은 23개월 동안 영농 활동을 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공지한 필수 서류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농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흥군의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